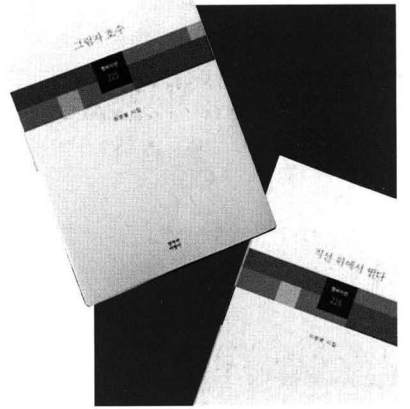


은밀한 10년 열<sup>熱</sup>애<sup>愛</sup>

책의 겉과 속을 두루 사랑하게 되다





창작과비평사의 시선詩選이 새롭게 단장되었다. 창비 시선 255호 김영철 시인의 《그림자 호수》가 새롭게 단장된 시의 집합에 그 첫 이름을 올렸다. 여백이 넉넉해 다의적인 의미가 엿보이는 시집의 표지는 한 편의 시를 닮기도 했으며, 중심이 되는 기본색으로부터 채도와 명도를 변화시킨 배색의 어울림은 사물에 대한 섬세하고도 깊은 시인의 시선視線이 담긴 듯도 하다.

이번 창비시선을 새롭게 디자인한 이는 창작과비평사 미술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선희 씨(33). 북디자이너이기 이전 독자로서의 감각적인 시안詩眼이 없었다면, 시와 시인을 닮은 시집의 표지를 만들어내기란 힘들었을 것이다.

“창비시선 디자인에 대한 논의는 예전부터 있어왔어요. 이번 작업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시집 자체의 퀄리티를 높이면서 독자를 배려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느 시인의 시를 담고 있어도 자연스러움을 잃지 않게 모델화하는 작업도 중요했지만, 실용성을 살린 시집의 형태를 갖추는 일에도 마음이 쓰였습니다.”

이선희 씨는 시집을 펼칠 때마다 부적절한 제본이 마음에 걸렸다. 시집과 같은 작은 판형에 이른바 ‘떡제본’이라 불리는 무선제본은 독자가 접하고 관리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이선희 씨는 여러 형태의 제본양식을 찾아보다 양장본이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하드커버가 아닌 소프트커버로 변형하여 양장본과 일반책의 장점을 조화롭게 살려냈다.

실제 새롭게 단장된 창비시선은 미려하기도 하거니와 시집을 펼쳐 보면 실용성을 갖춘 제본양식에 다시 한번 만족하게 된다. 펼친 시집의 가운데, 꿈꿈하게 실로 엮인 흔적들을 보고 있으면 시집의 체온

이 느껴지기까지 한다.

“아이디어를 고스란히 담기까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제본과정에서 자동화가 되지 않으면 재판발행 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샘플링작업을 꽤 많이 거쳤지요. 북디자이너라고 하면 흔히 표지디자이너만을 작업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책날개, 내지 컨셉, 띠지, 제본에 이르기까지 책의 모든 사양에 대해 감각적으로 접근하고 승부하는 것이 북디자이너의 몫입니다.”

이선희 씨는 효성여대(현 대구가톨릭대) 서양화과를 졸업한 이력을 갖고 있다. 미대출신으로 회화에 대한 미련도 있었지만, 평소 책을 좋아해 출판사 북디자이너 제안에 선뜻 마음이 끌렸다.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작문에 대한 콤플렉스도 북디자이너의 길을 선택하는 데 얼마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실천문학사와 문학동네를 거쳐 창작과비평사에서 북디자이너의 길을 이어오고 있는데, 메이저급 출판사만을 거친 경력을 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이선희 씨는 북디자이너에 관한 한 베테랑으로 통한다.

“이강산 시인의 시집 《세상의 아름다운 풍경》이 저의 첫 작품입니다. 완성된 시집을 받아든 날 사실 조금 떨리기까지 했어요. 만져보고, 펼쳐보고, 살펴보면 많은 사람들의 손에 선택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처음과 달리 요즘은 제가 디자인한 책이 나와도 그리 골똘히 보지는 않습니다. 서점에 깔린 책을 보듯 결눈으로 쓱 훑쳐보는 것이 전부인데, 그때 얻는 객관성은 다음 작업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에게 선택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하지요.”

이선희 씨는 전시공간을 통해 타인과의 소통이 가능한 회화와 달리, 한 권의 책 자체가 전시공간이 되며, 책을 소장하고 있는 사람과 쉽게 교통할 수 있다는 것을 북디자인의 가장 큰 매력으로 꼽는다. 십 년 가까이 북디자인 작업을 놓지 못한 이유 역시 그것이다.

이선희 씨는 창비소설선을 통해서도 그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책을 가까이 하는 독자라면 이선희 씨가 디자인한 몇 권의 책쯤은 책꽂이에 꽂혀 있을 법 한데, 소설가 성석제의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은희경의 《마이너리그》, 권지예의 《꿈꾸는 마리오네뜨》, 천운영의 《바늘》, 그리고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황석영의 《삼국지》 등이 그의 손끝에서 나왔



다. 이 책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보면 북디자이너 한 사람의 작품이라 생각  
키 힘든데, 이는 작가와 작품의 캐릭터를 파악하고 그에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을 입히는 이선희 씨의 노련함이라 할 수 있다.

“창작집의 경우 표제작은 꼭 읽어보고 작업합니다. 독자의 입장으로  
너무 깊게 접근하면 오히려 디자인 작업에 방해될 때가 있어요. 책과의 10년  
연애를 통해 얻은 감각이 있다면 가깝지도 그렇다고 멀지도 않은 긴장의 관  
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문서를 작업할 경우 저 역시 이해하기 힘든 부분  
이 많은데 그럴 때는 편집부를 통해 디자인에 필요한 소스들을 얻어 옵니다.  
인문서는 강하게 어필해야 한다는 분명한 컨셉이 있어 다른 책들보다 작업  
이 흥미로운 편입니다.”

이선희 씨에게 가장 애착이 가는 책이 무엇이나고 물으니 손사래를  
친다. 각각이 다른 그 다양함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작품, 어떤 작가를 꼽  
으라는 물음에 대답하기란 너무 어렵단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이야 없겠지만, 덜 아픈 손가락쯤은 있지 않겠냐는 기자의 엉너리에 이선희  
씨는 김상환, 홍준기 공동편찬 《라캉의 재탄생》과 고은 시선집 《어느 바람  
을 슬그머니 밀어 놓는다》.

이선희 씨는 한 달에 보통 서너 권의 북디자인을 맡는다. 책마다 디  
자인 스케줄이 겹쳐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책이 떠날 날이 없다. 디자인의  
실마리가 떠오르면 건넌 걸음을 멈추고라도 메모하는 것은 이선희 씨의 오  
랜 습관 중의 하나이다. 쉬는 날이면 서점을 둘러 디자인 트렌드도 두루 살  
피고, 틈틈이 자신이 디자인한 책을 읽기도 한다.

“세계 있어 책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는 때가 많습니다. 돌아보면 제  
생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책이고, 저 역시 책이라는 프리즘을  
통해 세상을 보고 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지탱하는  
소속이나 테두리가 저마다 있겠지만, 세계는 그것이 바로 책인 듯합니다.”

한 사람의 소속이거나 테두리가 책이라고 단정할 때는, 그것과 운명  
을 결부結付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나이가 들어도 어느 곳이든 불러  
만 준다면 오케이”라고 북디자이너로서의 경계를 경쾌하게 대답하는 이선희  
씨. 창비시선 날개하단에 작게 명기된 ‘Lee Sun-Hee’ 라는 이름이 크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이선희**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

